

사회문화적 사이보그인 ‘나’

-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심리학이 필요한 이유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내 욕구의 정체

곧 바로 외워야 할 전화번호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경우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떠한 욕구가 일어날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면 아마도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까?

① 수첩을 꺼내서 필기구로 메모한다, ②휴대폰에 입력한다. ③ 혹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머릿속에 전화번호의 숫자를 반복한다. 또는 ④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⑤ 내 머릿속에는 기억메모리 칩이 있어서 자동저장 돼, 누군가의 말을 굳이 귀담아 듣거나 메모하지 않아도 나중에 머릿속 칩만 작동시키면 전화번호가 자동재생되니 ‘①②③④’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도 2012년을 사는 사람에게 ⑤번과 같은 욕구는 마음속에서 일지 않을 것이고 선택지는 거의 ‘①②③④’ 중 어느 것일 거다. 이처럼 우리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고 싶은 것은 시대나 조건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다. 욕구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너무 덥네, 에어컨을 켜자!’는 욕구는 일어나지만 ‘너무 덥네, 체온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자’는 욕구는 일어나지 않는다.(그런데 일본 유학시절 만난 어느 파키스탄인 교수가 파키스탄에는 먹으면 몸이 서늘해지는 가루가 있다는 말을 해 깜짝 놀란 적이 있긴 하다.) “부산대학교에서 남포동을 가는데, 지하철로 갈까?” 하는 욕구는 자연스럽게 일지만 “거기까지 순간 이동을 해서 갈까?”는 몽상은 해도 욕구로 일지는 않을 것이다. 또, 벚꽃이 만발하는 4월의 어느 봄날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든 또 누구든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에 놀러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는다. 반면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진해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다는

이야기를 과발 등으로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욕구는 생기지 않는다. 자동차와 도로 같은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메모와 실온조정과 이동을 위한 이런 도구나 장치가 개발되기 이전 세계를 상상해보자. 종이와 펜이 발명되기 전이거나, 문자나 기호가 개발되기 전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필기구를 사용하는 메모의 욕구는 없었을 것이다. 같은 논리로 실온조정과 먼 거리로의 이동의 욕구도 지금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이화우 훔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더라.’

부안 기생 매창이 불렀던 연가다. 매창이 살았던 시대엔 천리 길 떨어져 있는 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버스나 자동차, 비행기도 없고, 목소리만이라도 하며 연락을 취할 전화도 없었다. 당시의 ‘천리’는 사회·기술적 조건의 차이로 지금의 ‘천리’보다 훨씬 더 멀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천리라는 공간을 넘어서 ‘만나러 가고’ ‘연락을 취하고’ 싶은 욕구는 일어날 리가 없고, 임을 보고 싶은 마음만 더 간절해졌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뭔가 행위를 수행하려고 할 때 이미 욕구 그 자체는 이용가능한 도구와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가능하다.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몽상은 한계를 넘어 존재한다. 그런 시대와 환경적 조건을 넘은 몽상들이 때론 도구와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위 하려고’ 욕구를 갖는 것은 이용가능한 도구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칼론(Callon)이라는 프랑스의 과학사회학자는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생각에 도달하거나 느끼는 것은 그들이 가진 사회기술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다.

길을 걷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느낄까? 시를 한수 지으려고 할까? 그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할까?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풍경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려고 할까? 그것은 내 손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이용가능한 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는 석양이 질 무렵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욕구는 마음속에서 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꿈과 같은 기계를 몽상한

사람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욕구와는 다르다. 카메라 이전에는 사진이라는 선택지 그 자체가 없었다.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 공중과 방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닥터진>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일본의 만화 작가 무라카미 모토카(村上 もとか)의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2009년 ~ 2010년 후지 텔레비전에서 <仁(JIN)>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2009년 도쿄의 어느 대학 병원의 뇌외과 의사였던 ‘진(JIN)’은 우연히 머리를 다친 환자 한명을 수술하게 된다. 그런데 이 환자의 머릿속에는 태아모양을 한 종양이 발견되고 그 종양제거 수술에 성공한 진은 종양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실험실에 보관하게 된다. 수술이 있었던 그 날 밤 그 환자와 종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진은 그 종양을 들고 도망가는 환자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순간 불가항력의 힘에 의해 1862년 에도시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좌충우돌 하며 에도시대의 삶을 살던 중 진은 에도의 저잣거리에서 말발굽에 머리를 차여 심한 부상을 입은 여인을 수술하게 되었다. 평소 같았으면 식은 죽 먹기였을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불행히도 그곳은 1800년대의 에도시대 시장바닥이었던 탓에 아주 위험한 수술일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마취제가 없어 큰 곤란을 겪는다. 응급상황에서 결국은 마취제 없이 머리에 난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시작하고, 그 여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다 기절하기에 이른다. 진은 여인의 혼절을 바로 자기 눈앞에서 두고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자각한다. 다행히 수술은 여인의 어린 아들이 울면서 부르는 ‘말로 하는 마취제’(에도 사람들이 통증을 잊게 한다고 여기며 서로 불러주는 노래)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진은 수술 뒤 2009년의 도쿄에 두고 온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며 혼자 말을 읊는다.

미키.

믿을 수 없겠지만 난 지금 에도에 있어.

수술을 하면 살인자로 몰리는 세상에서

만족스러운 도구나 약도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어.

너무 간단한 수술이라서 2009년의 세상이라면 실패할 리가 없는
그런 수술이 여기에선 생사를 건 고투가 되고 말아.
내가 지금까지 수술을 성공시켜 왔던 건 내 실력이 아니었어.
지금까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약과 기술, 설비나 지식이었던 거야.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린 난,
통증을 줄이며 꿰매는 법 하나 모르는 돌팔이였던 거야.
14년이나 의사를 하고도 난 그런 것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걸 몰랐어.

진의 독백에 나오는 “14년이나 의사를 하고도 난 그런 것도 몰랐어.”라는 대사는
심리학의 주제인 “주체’ 혹은 ‘주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진이 수술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슈퍼에서 물
건을 사고 나서 계산을 할 때,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할 때, 책을 어디까지 읽
었는지 찾고자 할 때는 언제나 빈손이 아니다. 우리는 늘 나의 밖에 있는 도구에
의존하고 있다. 인간은 그렇듯 의존하기 위한 도구, 인공물(artifact)을 지금까지 만
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 것이다.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은 인간의 ‘주체성’이 생
래적인 몸뚱이만을 갖고는 성립하지도 않고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다.

‘주체’는 행위 하는 바로 그 존재다. 예를 들면 책의 특정한 페이지를 펼치는 행위
를 손에 골무를 끼고 수행하고 있는 경우, 책을 펼치는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 손
골무를 끼고 할 때와 끼지 않았을 때, 책을 펼치는 행위가 달라진다면 행위자만으
로는 ‘행위 하는 존재’ 즉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343

×

822

만약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요청을 받으면 여러분은 아마 281, 946이라는 답을 어
렵지 않게 내어 놓을 것이다. 또 어떻게 이 답이 나왔는지를 물으면 “343에다가
822를 곱하였습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고 답할 수 있다.

343

×822
686
686
2744
=281946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다. “문제를 푼 것은 정말로 당신(고립된 개인)인가?” 하고. 아마 돌아오는 대답은 “바로 이 내가 당신 눈 앞에서 이렇게 곱셈하는 것을 봤잖아요.”가 아닐까.

지금 던지는 물음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계산 절차를 약간 변경시켜 보자. 예컨대 343×822 라는 문제를 앞에서 사용한 방식인 세로셈 말고 그냥 가로셈으로 해서 풀게 하면 어떻게 될까? 당장 우리 큰 아이(초등학교 4학년)에게 그렇게 해서 풀어보라고 했더니 불편해 하며 반발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곱셈나눗셈을 가로셈으로 푸는 걸 곤란해 할 것이다. 설령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었어도, 단위수가 많아지면 앞에서 풀었던 세로셈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답을 내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떠올리며 아까 던진 물음을 다시 생각해 보자. “과연 이 문제는 행위자 혼자서 풀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왜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달라지면 해결하기가 힘든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손 끝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위는 어떤 특별한 도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페이지를 표시해 두는 역할을 하는 책갈피도 마찬가지다. 책갈피를 잃어버리면 방금 읽었던 페이지를 찾기가 수월치 않듯이 ‘세로셈’이라는 문화적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복잡한 곱셈 문제를 수행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조금 전에 던진 물음에 답을 해보기로 하자. “나는 그 문제를 ‘세로셈’이라는 문화적 도구와 함께 풀었다.”

이처럼 인간의 행위는 만사가 도구와의 불가분한 일체화(一體化)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를 둘러싼 조건과 도구에 좌우되지 않고 머리만으로 매사를 처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외계(조건)와 도구와 불가분하게 세트가 되어 행위 하는 것이 바로 나와 당신과 우리들의 실체다.

홀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주자의 손가락은 피아노의 건반이라는 도구 위를 달리고 눈은 악보라는 기보(記譜)시스템에서 정보를 입력한다. 음악은 ‘지금 여기’에서 연주자 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연주되는 음악은 작곡가와 악기, 악기제작자와 피아노 조율사 그리고 연주자와 기술, 연습곡집과 같은 일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집합체’의 한 단면으로서 우리에게 와 닿는다. 음악가의 주체성도 닥터 진이 그런 것처럼 사회·문화·역사적인 생태학의 지평 위에서 펼쳐진다. 그런 의미에서 연주자는 ‘사회문화적 사이보그’다.

사이보그는 인공적인 기관(器官)과 일체화를 이룸으로써 생래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인간을 가리킨다. 사회문화적 사이보그는 당연히 음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피부 바깥세계의 도구와 일체화해서 지식과 기능을 인스톨 하여 만들어진 사이보그다. 이 사이보그는 사회문화의 힘에 의지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닥터진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문화에서 떨어져서는 자립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가령, 이 사이보그는 칠혹 같은 산길을 이동하는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회중전등’과 일체화를 이루었을 때에만 능력을 발휘한다는 제약이 있다. 회중전등이 없으면 이 능력은 사라지고 만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 하나의 심리학

‘욕구를 포함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주체는 사회·문화·역사라는 생태학 속에서 비로소 이해 가능하다’는 이 글의 논조는 러시아 심리학자 비고츠키의 아이디어에서 유래한다. 이 땅에서는 그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해석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그는 일관되게 우리의 욕구, 마음 혹은 주체를 사회·문화·역사의 집합으로 보았다. 수술, 피아노 연주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문자나 언어도 그리고 아이디어도 사회로부터 왔고 역사적으로 문화 속에서 만들어져 유지되고 정련되어 왔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심리학의 계보에서 주체의 문제는 지금까지 꾸준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른바 주류 심리학에서는 ‘개체의 내부에 갇힌’ 혹은 ‘사회·문화·역사로부터 고립된 주체’를 전제로 인간을 다루어 왔다. 그 결과 주체를 인간의 ‘머릿속’ 혹은 ‘피부를 경계로 안쪽’이라는 어휘 꾸러미로 표현하고 규정한 탓에, 그것

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뭔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심리학이 그린 그림에서 빠져나와 있는 사회문화적인 집합체로서의 ‘주체’가 바로 그것이다.

주류 심리학 이론은 ‘주체를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으로부터 고립된 행위주체’로 기술해 왔지만, 우리의 일상적 행위는 당연히 사회문화의 여러 요소와 분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론과 상황의 괴리 덕분에 우리는 ‘전화번호의 기억과 수술과 그리고 피아노 연주’와 같은 행위의 사회문화적인 성립과정에 눈길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도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뭔가가 있고, 이른바 ‘내적인 행위주체’만으로 사태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학문은 세계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그 목차에 담을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살아 있는(生身) 연구자의 눈에 포착되고 기술되고 설명됨으로써 가공된다는 한계를 반드시 갖는다. 학문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도구로 조작 가능한 대상밖에 다룰 수 없다. 주류 심리학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혹은 어휘꾸러미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심리학의 격자(grid)에서 누락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은 무수히 많이 있다. 어쩌면 모든 학문은 예외 없이 그런 한계를 가진다. 다만 그 거친 격자로 인간세계의 복잡함을 담아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그 나름의 진실일 것이다.

또, 주류심리학은 삶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당연한 것에는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숙련된 드라이버는 운전 중에 ‘운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숙련된 행위자는 행위 중에 그 행위를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그 행위를 한창 배우고 있는 중이거나 어떤 이유로 자동적인 행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관심이 간다. 심리학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류 심리학의 연구 토픽은 우리의 혼하디혼한 일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상과는 다른 이른바 ‘비상사태의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였을지도.

닥터진의 고백처럼 어느 누군가의 능력은 누군가만의 것이 아니라 오랜 사회·문화·역사를 아우른 총화다. 우리는 시간도 거리도 멀리 떨어진 그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짜낸 지혜와 지금 여기서 분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사람의 ‘인간다움’이다. 우리는 역사와 지리의 저편에서 수행된 누군가의 실천과 지금 여기를 나누어 갖고 있는 존재다.

지금 이 순간 이 작업,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거나 그러한 모든 순간의 배경에 셀 수 없는 선인들의 실패와 성공을 거친 여정이 숨겨져 있다. 혼자서 수술하고 계산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집합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이 짧은 에세이 안에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서로 버물어져 울리고 있다. 많은 학인들의 목소리와 많은 실천가들의 목소리. 나는 단지 자신의 내부에 쌓여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교묘히 배치하여 나의 말투로 뱉어낼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욕구, 마음 그리고 능력 혹은 무능력은 ‘고립된 개체’의 내부에 붙박여 있다고 보는 이른바 ‘심리주의’라는 대기압 아래서 자신이 ‘사회·문화·역사적’ 혹은 ‘집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에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작금의 학교는 이러한 ‘심리주의’를 강화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사회·문화적 사이보그를 대량으로 생산해 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명백한 사회·문화적 사이보그 임에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사이보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보그 말이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회·문화적 사이보그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또 하나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그러한 자각을 통해서야 비로소 기존의 주류심리학이 만들어 놓은 상투적인 어휘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구(예컨대 어휘)의 창조 나아가 새로운 마음과 욕구의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새로운 어휘꾸러미로 인간을 말하는 또 하나의 심리학은 사회문화적 사이보그로서의 인간을 만나러 과감히 실험실을 뛰쳐나와 어딘가로 향한다. 그 학문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우리 주변 반경 300m의 저갯거리에서 일어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래서 재미도 없는 흔하디흔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다.